

■ 권운(槐雲) 칼럼



과하지욕(胯下之辱)과 족가지마(足家之馬)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사마천의 사기(史記)「회음후 열전(淮陰侯 列傳)」에 과하지욕(胯下之辱)과 족가지마(足家之馬)라는 말이 나온다. 과하지욕(胯下之辱)은 사타구니 아래로 기어간 치욕이요, 족가지마(足家之馬)는 족가(足家) 가문의 말처럼 분수에 지나친 행동으로 경계하라는 말이다.

먼저 과하지욕(胯下之辱)이다. 한신(韓信)이 젊었을 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빌붙어 살았다. 그러다 보니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신은 남다르게 품은 뜻이 있었기에 항상 큰 칼을 차고 다녔다. 어느 날 고향 회음의 시장 거리에서 칼을 찬, 한신을 보고 불량배 하나가 시비를 걸어왔다. “이봐! 너는 늘 칼을 차고 다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 아니냐? 네 놈이 사람을 죽일만한 용기가 있다면 그 칼로 나를 한번 찔러보아라. 그렇지 못하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라!” 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구경꾼들이 모여들자 한신은 바닥에 엎드려 엉금엉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 나왔다. 이 일로 온 시장 바닥 사람들은 한신을 겁쟁이라고 비웃었다.

훗날 초왕(楚王)이 된 한신은 옛날의 그 불량배를 찾았다. 불량배는 왕이 된 한신 앞에서 발벌 땔었다. 그러나 한신은 불량배에게 순찰을 하는 ‘중위’ 벼슬을 내리고 장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장부다운 사람이요. 내게 망신을 줄 때 내가 그를 찌를 힘이 없었겠소? 그때 모욕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았더라면 나는 죄인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거요. 큰 뜻을 품은 내게 그를 죽이는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소. 그래서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아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소.” 하였다 여기서 큰 뜻을 지닌 사람은 쓸데없는 일로 남들과 육신각신 다투지 않음을 빗대는 말이다.

다음은 족가지마(足家之馬)이다. 중국 진나라 시대 어느 마을에서 사람들의 성씨가 신체의 일부를 따르는 전통이 있었다. 대대로 귀가 큰 집은 이(耳)씨, 화술이 능통한 사람들을 배출한 집은 구(口)씨,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 집은 수(手)씨 집안이 있었다. 그런데 수씨 집안에는 매우 뛰어난 말 한 필이 있었는데 손재주에 의해 길들여진 말이었다.

어느 날 도적들과 전쟁에서 수씨 집안 큰아들이 이 말을 타고 나가 큰 공을 세워 진시황제로부터 큰 벼슬을 받았다. 이것을 본 족(족)씨 집안에서는 수씨 집안보다는 자기 집안이 달리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 한 필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도적들이 보복을 위해 마을로 내려왔다. 이를 본 족씨는 아들에게 수씨 집안보다 먼저 말을 타고 나가라고 했다. 그런데 족씨 집안 아들이 말을 타고 나가다가 대문 윗부분에 머리를 부딪혀 어이없게도 죽고 말았다. 이를 본 족씨는 대성통곡(大聲痛哭)을 하면서 “내가 진작 분수에 맞는 행동을 했더라면 오늘의 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을..” 하면서 후회하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족가지마(足家之馬)라고 했다.

이 말은 고사성어(故事成語)라기보다는 오래전에 누군가 웃자고 지어낸 유머 같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되고 있다.

권오운 부회장, 시조집 <봄날> 출간

시조시인 권오운 부회장이 시조집 ‘봄날’을 출간했다. 권오운 시조시인은 “웃음부자, 웃음갑부” 수필집을 내었으며 평소 웃음은 만병통치라는 생각으로 늘 웃는 시인이다. 우리 속담에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웃는 모습은 상대방의 마음도 즐겁게 하고 화가 났던 마음도 풀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 시조집에는 평소 시인의 삶의 태도와 삶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다. “힘들 땀 박장대소로 가시발길 있어보세,” “삶의 길 동반자로서 어깨동무 함께 하세” “대박이 꽃바람 타고 두리둥실 날아오네”라는 생각은 웃음을 친구처럼 동반자처럼 생각하고 늘 함께 하고 싶어하는 시인의 모습이 다. 일독을 권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대화

순주의 예쁜 짓에 지폐 몇 장 주었더니
“난 싫어 더러워서” 어안이 병병했지만
정말로
밝고 맑은 말
가슴 깊이 스민다

내 손이 부끄러워 멍하니 서 있는데
“싫은 건 돈이잖아 할배는 너무 좋아”
천사님
목소리인가
온 가슴이 뜨겁다



서울지역종친회 유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태릉은 조선왕조 제11대 중종대왕의 세번째 왕비 문정왕후 윤씨의릉으로, 특히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역대 왕들의 내역과릉침을 조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25년 6월 8일, 일요일 11시

♣ 장 소 : 서울 노원구 태릉

♣ 집결지 :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2번 출구

♣연락처: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5년 6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열하일기(熱河日記)』에서 ‘민생(民生)’을 찾다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길

18세기 건륭(乾隆) 연간에 중국 청(淸)나라는 세계 제국을 이루고 있었다. 『사고전서(四庫全書)』와 같은 제도와 문물의 정비는 물론 서양을 통해 들어온 과학문명도 대단한 수준에 있었다. 이를 일찍이 간파한 ‘북학과(北學派)’, 소위 ‘연암그룹’은 선진화된 청나라 문화의 수입을 통해 18세기 조선 개혁의 프로젝트를 실행하려고 하였다. 현실성 없는 정치구호인 ‘북벌(北伐)’이 아닌, 청나라의 선진문명을 배우자는 ‘북학(北學)’이 바로 그것이었다.

북학에 대한 열정과 탐구가 계속될 즈음 연암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북학의 본거지, 북경에 드디어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연암이 44세가 되던 1780년(정조 4), 6촌 형이자 영조의 부마인 박명원(朴明源)이 청나라 건륭황제의 70회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의 정사로 임명되어 그 개인수행원 자격으로 연행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중국기행의 결과 나온 책이 바로 『열하일기(熱河日記)』다.

당시 조선에서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멸시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문화수준이 앞선 것은 아니었다. 중화가 망했으니 우리가 중화라는 ‘소중화(小中華)’의 알량한 자존심 속에서 쓸데없는 오기만 부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그런데 청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다. 연암이 중국을 다니며 주의 깊게 본 것은 이런 발전된 선진문명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활의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이었다.

<옥갑야화(玉匣夜話)> 혹은 <허생전(許生傳)>의 역설

중국 대륙을 휘젓고 다니는 연암의 유쾌한 지적 모험은 언제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18세기 조선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걸리는 것은 늘 국정을 휘두르고 있는 조선의 고루한 사대부들이었다.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갑(玉匣)에서 비장(裨將)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옥갑야화(玉匣夜話)>(일명 <허생전(許生傳)>)는 그런 연암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 는 작품이다.

흔히 <허생전>이라고 부르는 중심이야기

의 주변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층을 이루며 감싸고 있어 그야말로 ‘천일야화(千一夜話)’처럼 ‘옥갑야화’가 되었다. 이 <옥갑야화>는 역관들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번 이야기로 시작되다가, 병부상서의 부인을 창가(娼家)에서 빼낸 역관 홍순연(洪純彦)의 이야기로 이어졌고, 정세태(鄭世泰)가 망한 이야기로 갔다가 조선 제일부자인 역관 변승업(卞承業)의 이야기로 귀결되었다. 거기서 연암이 “나도 윤영(尹映)에게서 들었다”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쓴 것이라 하지 않고 윤영에게서 들었다고 살짝 발을 뻗는 것이다. 조선의 현실을 직접 얘기하자니 빠져나갈 구실이 필요했던 것이다.

<허생전>은 흔히 허생이 변승업에게 만냥을 빌려 백만 냥의 돈을 번 전반부와 이완 대장에게 북벌론의 허구를 통렬하게 꾸짖는 후반부로 나뉘는데, 앞의 이야기는 이렇다. 허생은 남산 아래의 목적골에서 가난하게 살며 10년을 정해 글공부를 했는데, 아내가 돈도 되지 않는 글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냐고 핀잔을 주자 7년 만에 집을 나서서 장안 갑부인 변승업을 찾아간다. 거기서 만 냥을 꾸어 안성에 가서 과일을, 제주도에 가서 말총을 모조리 사서 10배의 이윤을 남기고, 그 돈으로 변산의 도둑들을 데리고 무인도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3년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 곡식은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 팔아 백만 냥을 벌었다. 하지만 백만 냥이 나라 안에 유통될 수 없어 50만 냥은 바다에 버리고, 40만 냥은 나라를 두루 다니며 빈민들을 구제하고, 10만 냥을 가져다 변승업을 주었다.(100배의 이윤을 남긴 셈이다.)

이 전반부의 이야기는 이용후생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들이 먹고사는 실생활이 모두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당시 상품의 생산과 유통 또는 무역이 개선되고 장려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利用)한 다음에 후생(厚生)할 수 있고 후생한 다음에 덕(德)을 바르게 할 수 있다.[利用然後可以厚生. 厚生然後正其德矣.]”는 이용-후생-정덕(正德)의 논리구조에 의거해 이야기를 만든 것이다. 최종적인 목표는 덕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이용하여 후생하는 것이 전제조건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만 덕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말이다.

허생이 도둑들을 풍족하게 살게 한 뒤 무인도를 떠나면서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얕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고 한다. 물자를 활용하여 삶을 풍족하게 한 뒤에 덕을 바로 세우려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 후생의 단계에서 만족한 것이다. 그리고 화근을 없앴다고 글을 아는 자들을 모조리 데리고 나갔다. 덕을 세운다는 구실로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음을 안 것이다.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제정하는 등의 덕을 바로 세우는 ‘정덕’보다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용후생’이 먼저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무엇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민생’이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도강록(渡江錄)>에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서 능히 후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생존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서 정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不能利其用而能厚生. 鮮矣. 生既不足以自厚. 則亦惡能正其德乎.]”고 반문한다. 배부르고 등따스한 뒤에라야 진보나, 보수냐의 정치이념이 들어갈 여지가 생긴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민생의 길이 아니겠는가? 모름지기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서울산악회 제350차 정기산행 및 임시총회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50차 정기산행 및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6월 15일(일) 10시(시간엄수)

♣ 집합장소 : 6호선 상월곡역 4번 출구

♣ 산 행 지 : 천장산 둘레길

♣ 준 비 물 : 간식,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010-2240-4242

2025년 6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